



## 최근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부채탕감 거품 효과

권 울 세계지역연구센터 국제개발협력팀 팀장 (ykwon@kiep.go.kr, Tel: 3460-1060)

박수경 세계지역연구센터 국제개발협력팀 연구원 (skpark@kiep.go.kr, Tel: 3460-1074)

1. 2007년 ODA 실적
2. 부채탕감 변동에 따른 ODA 감소 배경
3. 국가별 ODA 실적 현황
4. 향후전망과 시사점

### 주요 내용

- ▶ 지난 4월 4일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2007년 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전년대비 8.4% 감소한 1,03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잠정 발표함.
- 부채탕감 부분을 제외한 순 ODA는 2.4%로 소폭 증가하였음.
-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가 전년 대비 10%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함.
- ▶ 파리클럽(Paris Club)의 이라크와 나이지리아에 대한 대규모 부채탕감 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전체 ODA 규모 중 큰 비중을 차지하던 부채탕감액이 줄어든 것이 ODA 감소의 주요 원인임.
- DAC 회원국의 전체 ODA에서 부채탕감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3.3%, 2006년 17.8%에 달함.

- ▶ 국별로는 최대공여국인 미국이 전년대비 9.9% 감소한 218억 달러의 ODA 규모를 기록하였음.
- DAC 회원국 전체의 ODA/GNI 비율은 2006년의 0.31%에 비해 하락한 0.28%를 기록함.
- 반면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북유럽 5개국은 UN의 목표치인 0.7%를 달성하였음.
- ▶ 원조의 양적 확대를 위한 OECD의 중장기 증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채탕감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원조배증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임.
- 수원국의 특성 및 개발 우선 순위를 고려한 프로그램 원조(Programmable aid)를 집중 지원해야 함.
- ▶ 한국의 경우 ODA의 양적 증가면에서는 전년대비 42.8%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언타이드화, 최빈국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원조확대 노력이 요구됨.

# 1. 2007년 ODA 실적

■ OECD/DAC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DAC 회원국의 2007년 공적개발원조(ODA)는 2006년 대비 8.4% 감소한 1,037억 달러 규모임.

- 이라크와 나이지리아에 대한 파리클럽(Paris Club)의 대규모 부채탕감 계획이 2007~2008년 완료됨에 따라 지난 2~3년간 최고치에 달했던 ODA 규모의 감소세가 예견되었음.

o 과거 전체 ODA 규모는 2005년 1,071억 달러, 2006년에는 1,044억 달러를 기록함.

- 부채탕감 부분을 제외한 DAC 회원국의 순 ODA 규모는 2.4%로 소폭 증가하였음.

-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양자간 원조규모는 유럽 국가들의 증액 추세에 힘입어 10% 증가함.

표 1. OECD DAC 회원국의 ODA 실적(2006~2007년)

	2007년 ODA(백만 달러)	ODA/GNI %	2006년 ODA(백만 달러)	ODA/GNI %
호주	2,471	0.30	2,123	0.30
오스트리아	1,798	0.49	1,498	0.47
벨기에	1,953	0.43	1,978	0.50
캐나다	3,922	0.28	3,684	0.29
덴마크	2,563	0.81	2,236	0.80
핀란드	973	0.40	834	0.40
프랑스	9,940	0.39	10,601	0.47
독일	12,267	0.37	10,435	0.36
그리스	501	0.16	424	0.17
아일랜드	1,190	0.54	1,022	0.54
이탈리아	3,929	0.19	3,641	0.20
일본	7,691	0.17	11,187	0.25
룩셈부르크	365	0.90	291	0.84
네덜란드	6,215	0.81	5,452	0.81
뉴질랜드	315	0.27	259	0.27
노르웨이	3,727	0.95	2,954	0.89
포르투갈	403	0.19	396	0.21
스페인	5,744	0.41	3,814	0.32
스웨덴	4,334	0.93	3,955	1.02
스위스	1,680	0.37	1,646	0.39
영국	9,921	0.36	12,459	0.51
미국	21,753	0.16	23,532	0.18
<b>DAC 국가 총계</b>	<b>103,655</b>	<b>0.28</b>	<b>104,421</b>	<b>0.31</b>

주: 2007년 실적은 OECD 전망치임.  
자료: OECD(2008, 4).

■ 2007년 ODA의 감소로 인하여 2005년 글레니글(Gleneagles) G-8 정상회담<sup>1)</sup>과 UN 새천년 + 5 정상회담(Millennium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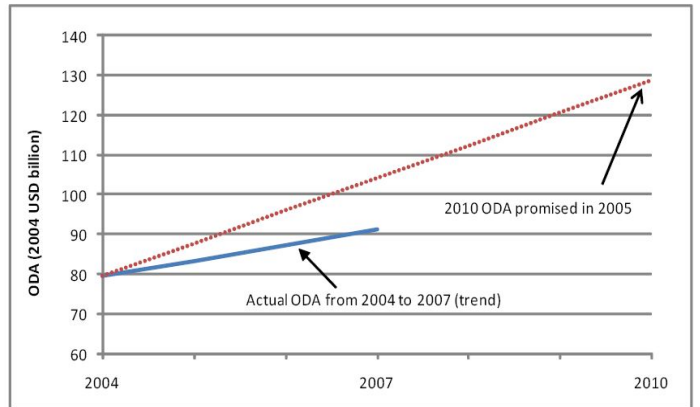
Summits)<sup>2)</sup>에서 결의한 ODA 목표치 달성 가능성 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OECD DAC는 2010년까지 1,300억 달러 규모로 ODA를 증액하고 더불어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두 배로 확대할 것을 결의하였음.

- DAC는 2005년 목표치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증액 추세를 비교한 결과, 2010년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두 배에 달하는 공여국들의 원조확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1. 2010년 원조 증액 목표 대비 실제 ODA 증가 추세

(단위: 2004년 기준 십억 달러)



주: 1) 본 자료는 2005~2006년 대규모 부채탕감으로 인한 실제 ODA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것임.  
2) 점선은 2005년 결의된 2010년 ODA 달성 목표, 실선은 2004년~2007년까지의 실제 ODA 증액 성과를 나타냄.

자료: OECD(2008, 4).

■ 최근 국제사회의 원조 동향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최빈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음.

- 한국은 2010년 DAC 가입에 발맞추어 국제적인 원조 추세를 상세히 검토하고 국제적 기준과 요구에 부합하는 원조 방향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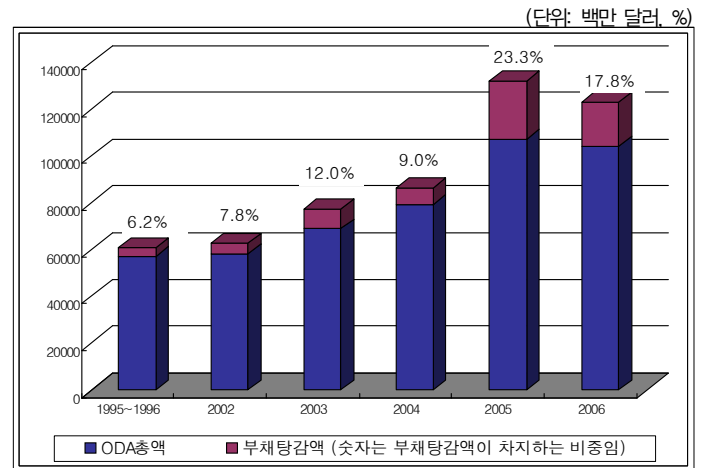
1) 2005년 7월 6~8일에 걸쳐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되었으며 아프리카의 개발 문제 및 세계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됨. 특히 아프리카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201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두 배로 늘리고 평화유지, 민주화 및 교육·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 등 아프리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에 합의함.

2) 2005년 9월 14~16일 UN 본부에서 열린 본 회담에는 150여 개국 이상의 정상들이 참여하여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2010년까지 빈곤퇴치를 위한 500억 달러에 이르는 재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로 합의함. 이외에도 안보, 인권, 환경 등 인류가 직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결의함.

## 2. 부채탕감 변동에 따른 ODA 감소 배경

- 파리클럽은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이라크와 나이지리아에 대한 대규모 채권의 단계적 탕감을 결의하였음.
  - 국제사회는 고채무빈곤국(HIPC: 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의 채무 문제가 지속될 경우 국제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을 우려하여 그동안 파리클럽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들의 외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진행해 옴.
- 이라크의 순수 대외채무는 1,200억 달러 규모이며, 이라크 재건을 위해서는 대규모 부채 탕감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탕감 결의가 이루어졌음.
  - 19개 파리클럽 회원국의 대이라크 채권은 약 210억 달러 규모임.
    - 파리클럽은 이 중 80%에 대해 30%는 즉시, 추가 30%에 대해서는 이라크가 2005년 IMF와의 개혁프로그램에 합의시, 나머지 20%는 IMF의 3개년 프로그램 완결시 탕감하기로 합의함.
  - 국가별 대이라크 채권 규모는 일본 41억 달러, 프랑스 29억 달러, 독일 24억 달러, 미국 22억 달러에 달함.
- 나이지리아는 전체 파리클럽 채권 규모인 약 300억 달러 중 60%에 달하는 180억 달러에 대하여 부채 탕감을 받음.
  - 2002년 당시 나이지리아의 국민총소득 대비 총외채 비율은 77%에 달해 외채상환 불능 상태에 처했음.
  - 나이지리아의 부채 문제를 방지할 경우 아프리카 주요 국가의 경제개혁이 위협 받을 것을 고려하여 채권국들은 부채탕감에 합의함.
  - 파리클럽은 2단계에 걸쳐 1차 연도에 33%, 2차 연도에 34%에 해당하는 부채를 각각 탕감하기로 합의함.
- 2005년과 2006년 기간 동안 이러한 대규모 부채탕감으로 인하여 ODA 액수는 외형적으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음.
  - OECD DAC 전체 ODA는 2005년 1,071억 달러, 2006년 104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 중 부채탕감 비중은 2005년 23.3%(약 240억 달러), 2006년 17.8%(약 186억 달러)임.

그림 2. OECD DAC 회원국의 ODA 총액 중 부채탕감이 차지하는 비중(1995~2006년)



자료: OECD DAC Internet Database.

- 그러나 이라크 및 나이지리아에 대한 부채탕감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부채탕감 거품(debt relief bubble)’효과가 사라지면서 전체 ODA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 상환불능 위기에 처한 저개발국가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부채탕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바람직하나, 부채탕감에 의존한 ODA 증액은 국제사회의 원조규모 확대 노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수원국의 정책 우선순위와 개발 필요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중심의 원조를 늘려감으로써 원조의 양적·질적 수준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

## 3. 국가별 ODA 현황

- 최대 공여국인 미국은 전년대비 9.9% 감소한 21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ODA/GNI 비율은 0.16%로 DAC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
  - 이는 이라크에 대한 부채탕감 감소분이 반영된 결과임.
  - 대이라크 부채탕감 액수를 제외한 다른 부문의 ODA는 증가함.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는 45억 달러로 4.4% 증가함.
    - 최빈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한 원조는 4.0%가 증가하여 48억 달러를 기록함.

